세이비어 교회 소식

- 1.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2. 10월 구역모임 안내 플러싱 구역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담임목사 가정에서 있습니다.
- 3. 새로운 예배당 건물을 위하여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 4. 수요예배(헌신예배 안내) 교우위원 헌신예배가 10월 30일 수요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교우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 기도, 헌금기도, 특송)
- 5. 친교 안내 오늘 친교는 베이사이드 구역입니다. 다음 친교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 * 다음 주일 예배는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10.11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10/27	섭	이관기	리어시에버	한순자
11/03	송명건	권이남	교회	한순자

예배 및 모임

모 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 족 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예수님을 위한 잔치 본문: 요한복음 12장 1~11절 기도제목: 1. 우리의 예배에 잔치집의 풍성함과 기쁨이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2.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의 헌신이 나타나는 우리 예배가 되길, 3. 실패한 헌신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향유는 일종의 향수입니다. 향수는 몇 방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매우 비싼 것이었고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향을 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발에 그 많은 양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상식을 좀 벗어난 행동을 칭찬해 주셨을까요? 과연 마리아의 이 행동이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는 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 예배 - 예수님을 위한 잔치 2절의 표현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 받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이런 저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잔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인 공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잔치가 더욱 풍성하고 뜻 깊게 될 수 있었던 더 어린 이우들이 있습니다. 이 자치에 하께 참여한 사라들이 모수 때문이니다. 던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2. 마르다

2. 미르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마도 마르다의 달란트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르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 히 교회를 섬겨 주실 때, 그 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나머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나사로 두 번째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사로는 어떤 나사로인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살아있는 나사로의 모습만 보아도 아마 큰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사로가 한 일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곳에 함께 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축제와 기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사로와 같이 그냥 그 자리를 지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서 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안이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나사로와 같은 역할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계신 것만으로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되고 위로가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4. 마리아

4. 마리아 세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날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인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그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 예수님 앞 날에 펼쳐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마지! 예수님 앞 날에 펼쳐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마지! 지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마리아가가지고 있던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어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의 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풍성하고 은혜로운 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함께 하여지길 소원합 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풍성한 잔치가 되어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

*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0,11 월 행사

10월 30일 교우 위원 헌신예배 11월 3일 창립 4주년 기념예배, 성찬식 11월 17일(추수감사주일, 노회 주관 찬양제)

교회 지원단체

뉴욕 밀알 선교단, 주님의 식탁, 뉴욕 농아인 교회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 Tel: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9시30분(1부)	수요예배(8시PM)	
	오전 11시(2부)	——————————————————————————————————————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교우위헌 헌신예배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말씀: 정요한 목사	
▲ 찬 송 Hymn	16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42번(마태 복음 5장)		
찬 송 Hymn	221장		
기 도(Prayer)	송 섭 집사		
성 경 Scripture	요한복음 12장 1~11절	토요 새벽기도회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예수님을 위한 잔치	7352131	
▲헌 금 Offering	71장	고린도후서 강해 토요일 새벽	
▲찬 송 Hymn	346장	오전 6시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